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임직식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목사

다같이

설교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믿음과 삶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8:1-3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 341)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지난 주일(10/11)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조병기 최준용, 집사-임영훈 장귀호, 권사-김지경 이명숙” 여섯 분이 임직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10/25) 예배 후에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4. 금년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은 전액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2021년 주소록을 만듭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양명철)
6. Joyful협동조합의 한국농수산물 구입에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새예배당에 들어갈 의자의 샘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8.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영상과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14,392

예배당 건축 현장 방문 기도회

10월 4일 임시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예배당 건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본적이 있습니다. 10월 초 기준으로 건축 공정의 70%가 진행된 것으로 계산되어졌습니다. Covid-19의 대유행으로 모든 것이 멈추었던 올해 봄에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예배당 건축도 2달 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공사가 속개되어 현재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좋은 건축회사를 만났고, 이웃과의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지만 잘 해결하며 은혜 속에서 진행된 결과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며 애초에 예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로확장공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당 앞 공용도로를 우리가 확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는 수용하기가 힘들어 1년 가까이 조정하며,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가로수를 자르고, 가로등을 옮기고, 전봇대와 소화전을 이동하고 인도와 도로를 새로이 포장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각 담당부서나 회사와 연락하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건축 재정의 부족이었습니다. 공사 시작 전부터 일정한 재정은 확보하고 시작했지만, 부족한 것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축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 마치 “Baby Shower”처럼 건축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하신 분들도 있고, 팬더믹으로 어려운 시점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 없이는 안될 일이기에 기도하며 준비하시라 권합니다.